



# 지회별 총회 속속 개시

- 전국 38개 지회 3월 중순까지 총회 실시, 다양한 의견 개진 -

가평지회를 시작으로 전국 38개 지회가 3월 중순까지 총회를 실시하고 2002년 힘찬 출발을 다짐한다.

올해 지회총회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중앙회 임직원이 각 지회총회에 참석, 지난해 사업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지역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받게 된다. 또한 각 지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지회 사업계획 및 운영안에 대해 논의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미 지난 2월 7일 지회총회를 마친 가평지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 비회원의 회원화 ▲ 친선 야유회 및 선진농장 견학 등을 통한 회원간 단합 ▲ 정기적 모임을 통한 정보 및 의견 교환, 기술 교류 등에 합의하고 지회 발전을 위해 회원 상호간 노력을 다짐했다.

가평지회 김종호지회장은 “가평지회의 자라는 늘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회원 상호간의 신뢰가 깊은 점”이라고 밝히고 “어려울 때 일수록 회원상호간의 협조와 단합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고 지회 발전을 위해 모든 지회원이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대전지회 역시 지난 2월18일 지회총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현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불법으로 유통되는 수입농물이 지역에서 속속 감지되고 있다며 회원 농가들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2월21일 총회를 실시한 춘천지회 회원들은 임기를 끝마친 현 홍종환 지회장을 연임시키기로 결정하고 신임 사무장에 김춘자(한국사슴백화점)씨를 선임하며 더욱 활발한 지회활동을 약속했다.

한편 현재까지 진행된 지회별 질의 및 건의사항에는 올해 말로 끝나는 사슴의 자가도축에 관련된 건이 주를 이뤘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슴에 대한 자가도축은 올해 말로 끝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축장에서만 사슴에 대한 도축이 가능, 농가의 피해 및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회는 그 시기의 연장, 혹은 예외 법령 마련 등을 관련 기관에 적극 개진, 회원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양록**



▲ 지회총회를 실시하고 있는 가평지회